



증례 III - 3

심한 교모에 의해 교합고경을 상실한 엇갈린 교합 환자의 Kouns 를 이용한 완전 구강 회복 증례

김효진*, 장익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 보철학교실

엇갈린 교합이란 상하악에 잔존치가 있음에도 교두감합위를 잃고 있는 증례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하악간의 대항관계가 치아와 점막의 관계이므로 치근막과 점막의 피압 범위량의 차이에 의해 교합시 의치의 불안정한 비뚤어짐과 변위를 유발하게 된다.

통상적인 국소의치의 설계와 제작으로서는 기능 회복이 쉽게 되지 않으며 장기적인 경과시 지대치 동요의 증가 및 탈락, 잔존 치조제의 흡수, 축진, 의치의 파손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본 증례의 환자는 기존의 *clasp*를 사용한 부분의치의 오랜기간 사용으로 후방지지를 상실, 상하악 전치가 마모되어 교합고경을 상실한 상태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저작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심미성의 회복을 원하였다.

수직악간관계에 대한 검사후 교합기 상에서 5mm의 교합고경을 2회에 걸쳐 기존 부분의치와 전치부 *Provisional restoration*을 이용하여 거상, 1개월 동안 환자의 적응정도를 평가하였다. 전방유도는 교합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customized anterior guide table*을 이용하여 최종 보철물 제작에 재현하였고 구치부 지지는 *konus RPD*를 사용하여 얻었다.

하악 무치악 부위에는 *Profix*를 사용하여 지지, 유지효과 및 유리단의 길이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치료과정을 통하여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포괄적 수복이 가능했기에 증례보고를 하는 바이다.